

‘연길 공주가 되어보세요’ 초대 행사 개최

연변의 독특한 정취 리해하고 체험하는 계기로 될 것

“서시장에서 맛있는 음식 먹어보고 싶어요!”
 “조선족 전통복장이 너무 예뻐서 기념사진으로 남기고 싶어요!”
 11일, 연변대학 창업창신부화센터에서 열린 ‘연길 공주가 되어보세요’ 초대 행사 (시즌 1) 설명회가 막을 올린 가운데 조선족 전통복장차림을 한 녀학생들이 차례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무대에 오르자 관중석에서는 휴대폰 카메라가 줄줄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청춘과 무형문화유산이 만나 연변 문화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자’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새시대 녀성들의 지혜와 재능을 통해 다양한 플

래트홈에서 연변의 독특한 매력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료해에 따르면 행사 주최측은 전문가들의 심사와 영상 ‘좋아요’ 수를 기준으로 10명의 참가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예능 촬영, 리행사진 촬영에 참여하고 무형 문화유산 대표 프로젝트를 체험하며 특색 있는 음식을 맛보고 매력적인 연변 가꾸를 배우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연변 문화관광사업에 새로운 청춘 활력을 불어넣는바 더 많은 관광객들이 연변의 독특한 정취를 깊이 리해하고 체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김영화 김가혜 기자



상금 만원, ‘매력 연길’ 주제로 관광상품 공모 시작

현지 문화관광자원 발굴해 중국조선족 문화자원 혁신전환 능력 전면 활성화

연길시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연길 시문화라디오텔레비전방송및관광국에서 주관하는 2025 제7회 연길관광상품대회가 정식 공모를 시작했다.
 이번 관광상품대회는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하고 현지 문화관광자원을 깊이있게 발굴하며 중국조선족 문화자원 혁신전환 능력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여 연길시 문화관광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무게를 두었다.
 료해에 따르면 대회는 ‘매력 연길, 레이는 이곳에’를 주제로, 관광상품기업, 문화창작공방, 수공예자, 대학교 설계팀, 개인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문화관광 작품을 공모하게

되며 예비심사, 재심사, 최종 평가 등 단계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고 국내 유명 관광상품 전문가를 초청해 출품작을 현장에서 평가할 계획인데 문화생활, 과학기술생활, 트렌드생활, 특산생활 등 4개 분야의 30여가지 유형에 따라 평의하게 된다.
 4월 20일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출품 단위 혹은 개인은 전자판 신청 자료를 지정 메일 (165660974@qq.com)에 보내면 된다. 5월말에 시상식과 ‘연길시 무형문화유산 전시 및 연길 관광상품 장터’ 활동이 열릴 전망이다. 대회는 상금 만원이 걸린 금상 3개와 상금 5,000원이 걸린 은상 5개, 상금 3,000원이 걸린 동상 10개를 설치했다. 상세한 신청 사항과 참가 상품 유형 및 요구,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 등 내용은 ‘연길 관광’ 위챗 공중계정을 통해 료해할 수 있다.
 / 김영화기자

길림성문화관광설명회 스위스에서 개최

일전 ‘안녕! 중국’ 길림성문화관광 설명회가 스위스 베른 중국문화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스위스 문화관광업계에 풍부하고 다양한 입국관광 상품을 소개했다.
 활동 현장에서는 ‘삼모춤’, ‘백마춤’ 등 공연이 펼쳐졌을 뿐만 아니라 종이공예, 끈짜기, 어피화 및 중국 사계절 전통 양생방식 등 길림지역 특색을 지닌 4개의 무형문화유산 전시 구역과 ‘다채로운 길림·따뜻한 약속’

이라는 주제의 사진전도 함께 열렸다. 길림성문화관광청 부청장 김진림이 방설관광 대상의 개발 건설, 방설관광 스포츠 경기 도입 등의 상황을 소개했다.
 스위스 주재 중국대사관 립시 대리 모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올해는 중국-스위스 수교 75돐이 되는 해이다. 스위스 주재 중국대사관은 스위스 측과 함께 ‘중국-스위스 문화 및 관광의 해’ 행사를 잘 개최하여 량국의 문

화관광 분야 협력을 촉진하고 량국 인민간의 상호 료해와 우정을 증진시켜 중국-스위스 혁신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할 것이다.
 스위스-중국 교랑협회 주석 칼리 베일리는 스위스는 “중국과의 친선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중국과 함께 ‘스위스-중국 문화 및 관광의 해’ 활동을 잘 개최하여 인문교류를 일층 밀접히 할 것이다. 더욱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스위스에 와 관광하는 것

을 환영한다.”면서 전시된 사진작품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선후로 여러차례 중국을 방문했으며 중국 문화에 대해 사랑과 호기심을 품고 있었다. 중국 서예를 좋아하는 미셸 임펠드는 중국의 여러 곳을 방문했다며 다음 목적지는 길림이라고 말했다. 장백산에 여러차례 올랐던 르네 루티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길림을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 신화사

두만강 중조로 변경 관광열차 4월 중순 재운행



▲ 열차 안에서 로씨야 악기 연주자의 즉흥 공연을 감상하고 있는 관광객들

/ 자료사진

훈춘철도통상구에서 한 붉은색 열차가 안전검사 등 모든 준비작업을 마치고 발차 지령을 기다리고 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중조로 삼국을 이어주는 관광 명함장인 ‘동북아 장려호’ 관광열차가 4월 15일 다시 기적을 올릴 예정으로 68키로미터의 중조로 삼국 변경 풍경을 연결해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체험을 제공하게 된다.
 ‘동북아 장려호’ 관광열차는 길림성 동북아철도집단지 장춘대학 관광학원 및 장춘중차계도객차유한회사와 손잡고 훈춘철도통상구 지리적 위치 우세에 의탁해 관광로선, 플랫폼 고조, 내부장식, 운영봉사 등 방면을 둘러싸고 ‘중조로 변경풍광 관광, 유람식 운수열차 풍경 관광, 인공지능 체험 관광’ 풍격을 겸비한 국제관광 려객운수 열차이다.
 ‘동북아 장려호’ 관광열차의 계획관광로선은 6갈래로 다국관광도 포함되는데 겨울철 휴식 정돈기를 거쳐 탑승

객제도, 스마트 언어 등 승객을 마쳤다. 열차는 훈춘남역에서 출발해 두만강 중조로 변경을 따라 운행되는데 국가급 삼림공원, 두만강 등 경관을 경유해 다시 훈춘남역에 도착하며 전반 려정은 68키로미터이고 운행시간은 약 3시간이다.
 길림동북아철도집단지 훈춘남역 역장 장세훈은 “4월 15일에 새 관광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열차의 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반 열차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보수, 검측, 관리리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열차에서 탑승객들은 변경 풍경을 감상하면서 다원화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한편 로씨야식 수프와 연변 김치를 맛볼 수 있고 로씨야 악기 연주자들의 즉흥적인 공연도 감상할 수 있다. 이는 연변의 부분 변경관광풍경구를 이어줄 뿐만 아니라 변경관광산업도 이끌어 향후 다국관광에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 연변라디오 TV 넷

수리시설의 도시 - 도강언



고대 촉나라 선민들이 살던 도강언시는 리빙이 세계적인 수리시설 도강언을 축조한 것으로 인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도강언시는 산과 물, 도시와 숲이 조화로운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의 도시이자 경치가 아름다운 관광 명승지이다.
 성도 별판의 서북쪽에 위치한 도강언시는 세계적인 수리시설 도강언으로 인해 명명되었으며 천혜의 땅 사천의 원천이라 불린다.
 도강언은 예로부터 사천분지에서 서북쪽으로 청해와 감숙으로 통하는 요충지이자 상업무역의 중심지, 군사요지로 려대로 도강언성의 서쪽에 관문을 설치하고 군사시설을 두면서 ‘사천 서부의 요충지’로 불렸다.
 리빙은 촉나라에 이른 후 현지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도강언 수리시설을 건설함으로써 해마다 어김없이 범람하던 홍수를 막고 촉나라의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다. 그때로부터 사천은 명실공히 천혜의 땅으로 되었다.
 600여년전의 명나라와 그 뒤의

청나라 때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가 번창한 도강언시는 린근의 도시들에 비해 큰 규모를 자랑하며 ‘미니 성도’라 불리기도 했다.
 장강상류의 지천인 민강은 사천 북부의 고산지대에서 발원하는데 해마다 여름이면 산사태가 나면서 세차게 흘러내리는 강물이 좁은 강바닥을 넘어 홍수피해가 심각했다.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별판에는 모래가 깔려 그 피해가 더욱 컸다.
 그와 반면 동쪽 기슭에 솟은 옥루산에 막혀 민강이 동쪽으로 흐르

지 못해 성도 별판의 서쪽에는 수해가 나지만 동쪽은 오히려 가물어 땅이 척박하고 백성들이 고난에 허덕였다.
 진나라 황제의 명으로 촉군 태수로 온 리빙은 현지 상황을 자세하게 조사하고 선인들의 치수(治水) 경험을 바탕으로 기원전 256년, 민강이 산을 나와 성도 별판으로 흘러드는 곳에 세계적인 수리시설 도강언을 건설했다.
 도강언 수리시설의 건설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발하던 사천 서부의

성도 별판은 ‘가뭄과 수해가 사람을 따르고 흉작과 기근을 모르는’ 천부지국(天府之國)이 되어 진나라의 6국 통일과 천부지국의 정치, 경제, 문화 발전에 거대한 역할을 했다. 지금까지 줄곧 그 기능을 발휘하여 수해 방지와 관개를 이루어주는 도강언 수리시설은 중국과 세계 수리력사에서 기적으로 인정되며 ‘살아 있는 수리박물관’, ‘수문화의 요람’이라 불린다.
 리빙 부자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사천인들은 494년과 498년에 이왕묘를 세웠다. 이왕묘는 원래 치수 공덕을 쌓은 리빙 부자를 추앙한다는 의미로 ‘송덕사’라 불렸다.
 도강언시의 서남쪽에 리퇴라는 산이 있는데 리빙이 이곳에 물을 끌어들이는 인수로 보병구를 내면서 외딴 산이 되었다. 삼면이 아찔한 절벽이고 산자락으로 세찬 물결이 흐르는 리퇴산은 린근의 산과 물, 성과 언제, 고적과 어울려 장관을 이룬다.
 중국의 전통문화를 선양하고 리빙을 기리기 위해 1990년부터 도강언 방수절(放水节)을 회복했다. 청명이면 관계수로 물길을 여는 방수절은 중국 수문화에서 가장 독특한 민속행사중 하나로 중국 무형문화재에 등재되기도 했다.
 도강언에서 서남쪽으로 15키로미터 거리에 위치한 청성산은 중국 도교의 발상지중 하나로 교 10대 동천중의 ‘제5동천’이다.
 앞뒤 두 산으로 나뉜 청성산은 둘레가 60키로미터이며 산발의 모양이 성곽을 방불케 한다. 숲이 무성하고 사계절 목욕이 질은 청성산은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다’는 높은 평가를 받는다.
 수려한 경치의 청성산은 도교의 명산이자 은자들의 은둔지이기도 해서 당나라 때의 시인 두보와 송나라 때의 시인 류유, 명나라 때의 시인 양성암, 근대의 화백 서비홍 등 려대로 많은 명인들이 청성산에 은둔했다. 오늘날 청성산은 많은 문화재가 남아있고 마애석각이 풍부하고 전각이 웅장하며 정자가 아담하고 명인들의 서예작품도 아주 많다.
 / 국제방송 - 조선어

송원시 양가촌 향촌관광 활기 가득

매년 봄이 지나고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면 송원시 녕강구 백도향 양가촌에서는 화사한 꽃축제가 열리는데 과수원에는 흰색과 분홍색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벌과 나비들이 춤을 추며 찾아든다. 양가촌당지부 서기 황인우는 관광객들에게 양가촌에서 아름다운 꽃구경을 즐기고 과일따기 체험도 해보길 바라다며 환영인사를 전했다.
 최근년간 송원시는 관광산업의 발전에 진력하고 서부관광순환선에 융합시켜 북방의 생태관광도시를 적극 건설하고 있다. 관광업의 중요한 일한 송원시는 농촌관광 발전의 기초를 부단히 다졌고 시장 규모를 날따라 확대하였으며 브랜드 이미지도 한층 더 제고하였다.
 서사은도촌, 구련산촌, 양가촌 등 국가급, 성급, 시급 농촌관광 정품 마을과 농촌생활 체험 ‘명소’를 통해 송원시는 농촌 생태관광을 적극 발전시키고 융합발전으로 주제학습,

캠핑카 야영, 민박촌 등 새로운 관광업태를 창출하면서 관광객들과 주민들에게 색다른 생활 체험을 선사하고 있다.
 농촌관광 상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 송원시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잡지, 핸드폰 등 다양한 형태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전 시 관광산업 자원을 통합하고 전 성 ‘핸드폰 한대로 길을 리행’하는 관광 씨비스 플랫폼에 접속시켜 관광객들에게 자를 씨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련동, 몰입, 체험 등의 방식으로 동북 3성과 내몽골 동부지역, 북경 - 천진 - 허북,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 지역에서 송원 관광 추천 활동을 조직,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새로운 관광객층을 육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송원 농촌관광 목적지 형상을 더욱 선명하게 다지었으며 시에서 현에 이르는 전역관광 형상 체계를 구축했다.
 / 길림일보

